

이제는 가족 위한 연휴...증후군이 사라진다

꼭 막힌 도로에서 6~7시간을 보내고 겨우 도착한 시골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전을 부치고, 생선을 찌고, 나물을 무치는 등 차례상 준비에 여념이 없다. 남성들은 장비를 메고 조상 묘지 별초에 나선다. 이어 추석날 이른 새벽 일어난 가족들은 부지런히 차례상을 준비한다. 이 같은 모습은 전통적인 추석 연휴 대부분 가정에서 볼 수 있었던 풍속이다. 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하는 추석은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와 함께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차례를 지내는 명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통적인 추석 풍경이 사라져가고 있다.

시대와 사회가 변하면서 명절 문화도 변하고 있다. 고향 대신 여행을 떠나는가 하면 제사·차례상을 간편하게 즐기기도 한다. 추석을 앞두고 활기를 띠던 전통 시장의 '추석 특수'도 시들해져 가고 있다.

차례상 줄이거나 지내지 않기도 '자손의 의무' 별초도 맡기지 오래 음식 준비 간소화·격식보다 실속 가족의 정 더 쌓여 '긍정적 반응'

◆추석, 가족 휴가의 계절

추석 연휴가 쉼지도 덥지도 않은 여행가기 딱 좋은 계절에 들어있는 덕분에 휴가를 떠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고향을 찾는 '민족 대이동'으로 기차와 승용차로 몸살을 앓던 추석의 상황은 이제 예전 같지 않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연휴를 통해 쉽게 떠나지 못했던 '가족 여행'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가깝게는 교외 나들이에서부터 평소 가지 못했던 국내 여행지나 해외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많다.

실제, 회원 김모(40)씨는 지난 해부터 추석에는 가까운 소도시로 여행을 떠난다. 차례는 지내지 않고 있다. 지난 해에는 김씨 부모님 댁에 모여 출발했지만 올해는 각자 살던 곳에서 곧바로 여행지로 모인다.

김씨는 "지난 해 설에 가족이 모여 이야기하다 '일년에 두 차례나 차례를 지낼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형제들이 1년에 몇 번 보기 어려운데, 명절 준비로 힘들기보다 가족 여행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위에서는 이미 5~6년 전부터 추석을 보내지 않고 여행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명절 증후군도 사라지고 가족들 간의 정도 더 쌓여 구경원들의 반응도 좋다. 내년에는 가까운 해외로 떠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차례 음식, 필요한 만큼만

여전히 차례를 지내는 가정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가정들도 차례상을 간소하게 준비하고 있다. '격식보다는 실속'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주부 이모(68·여)씨는 "다양한 음식을 푸짐하고 넉넉하게 준비했던 차례상을 수년 전부터 매년 줄이고 있다. 5가지를 준비하던 전은 3종류로, 나물도 5종류에서 3종류로, 과일 가지 수도 줄이고, 탕, 한과, 약과도 몇 가지를 뺐다."

이씨는 "수십 년 동안 준비하던 습관 때문인지 지금도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줄이자'는 말이 어색하다"며 "전이나 나물도 직접 하지 말고 사자는 은근한 압박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차례 음식을 정성들여 준비하는 의미도 있고, 그 시간동안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준비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정모(37·여)씨는 "차례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차례 준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명절 증후군도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씨는 "차례도 꼭 추석 당일 새벽을 고집하지 않고 가족들 스케줄에 맞춰 음식 준비 후 바로



추석 연휴를 앞둔 10일 곡성군 석곡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임정욱기자 jo5605@srb.co.kr



추석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무등일보 DB



광주 서구다문화지원센터 회원들이 차례상을 차리고 있다.

임정욱기자 jo5605@srb.co.kr

차례를 앞당겨 지내고 있는데, 오히려 편하다"고 덧붙였다.

◆별초는 대행업체에

추석을 앞두고 한 가정의 남성들 뒷이었던 별초도 이제는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모님 산소 별초만은 아들과 손자들이 직접 해야한다'고 고집하던 조모(83)씨도 이제는 이번 추석을 3주 앞둔 지난 달 중순께 지역의 별초대행업체에 맡겼다. 거뜬히 했던 별초가 10여 년 전부터는 혼자서는 엄두도 나지 않는 데다 큰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는 3명의 아들들도 바빠 시간 맞추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자신이 고집을 부려 자식들과 별초하다 아찔한 사고위험을 겪은 후에는 편하고 쉬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씨는 "사실 조부모님과 부모님 산소를 직접 별초하지 않으면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다"며 "고집을 부려 자식들과 별초하다 애초기 때

에 큰 사고가 날뻔 한 후로는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에서 별초를 대행하고 있는 선모(52)씨는 "보통 추석 한달 전부터 예약 전화가 몰린다. 지난 주말에는 하루에 20여 군데 정도 했다"며 "올해는 지난 해에 비해 예약이 30군데 정도 더 늘었다"고 밝혔다.

◆추석 특수 사라져가는 전통시장

차례를 지내지 않거나 간소하게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시장 상인들의 한숨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상인들 사이에선 '추석 특수'가 사라져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대부분이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대부분의 전통 시장은 기대 밖으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이제 추석 특수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손님들이 가격만 물어보고 비싸다며 돌아가곤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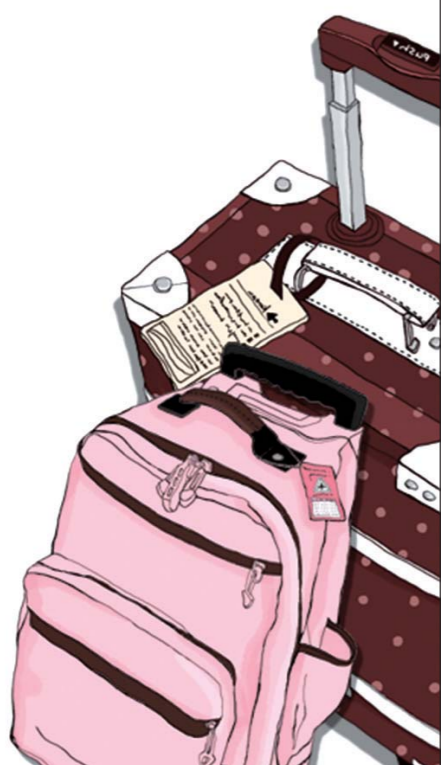
다"고 한숨쉬었다. 이 상인은 "특히 올해는 추석도 빨리 찾아온데다 장마와 태풍도 겹쳐 더 힘들다"며 "최근에는 '일본산 수산물 아니냐'는 질문도 자주 듣는다. 도매 단계에서부터 일본산은 들이지 않는다고 열심히 설명해도 믿지 않는 눈치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장의 한 과일 가게 상인은 "올 추석은 빼빼로다 태풍으로 과일이 비싼 탓인지 손님이 많지 않다"며 "사과나 배 등은 박스 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4~5개만 사가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청와대의 설 선물로 전국적인 유명세가 더 커진 '담양 한과'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매출이 급감, 휘청이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던 유과와 한과를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지 오래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대량 구입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심의필 제 190424-중-92867

환자를 위한 **오아시스요양병원**

화순전대병원 5분거리 062-250-2000
광주 동구 내남동 호반APT 옆 문의 010-4166-0222

뿔뿔/스트레스 질환

경희한의의원

불면증 · 우울증
환병 · 공황장애

062) 365-1541
화정동 추신회관 맞은편

깨끗한 자연환경을 살리는 파수꾼

유)오케이철거종합건축

오케이철거종합건축은 슬레이트/석면철거
장부하가 임해됩니다.
만들고 상설함을 기업아념으로 강령한
철거를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 슬레이트 석면 철거 전문
▲ 공장 / 주택 / 상가 철거
▲ 집수리 및 미니포크레인(압쇄기 보유)
▲ 인력 상당환경 / 모든 중구 고가매입

H. 010-2595-2116
☎ 062)952-2117, 956-2116
Fax. 062)942-2116

타이티안 유기농 노니주스

신이 주신 선물 내몸을 살리는 '노니'

진한 노니주스
미국 USDA 유기농 인증 노니주스
농약부제, 無색소, 無항료

미국 직수입 100%
디자인 등록번호 제 30-1002825호

062)375-8494 H. 010-3605-2926
수입원 - 광송무역 / 대리점 모집
info@gstkorea.biz

캠핑카 주문 제작·판매

푸드트럭 제작 가능!

중고차 수입·회틀
승용·승합
최고가 매입!

대한민국 최저가로 제작·판매 합니다!!
광주 서구 매월1로 63번길 11

(주)기가찬 H. 010-8647-3457
☎ 062) 651-0075

http://unisolar21.com

태양광 발전소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매전하여 매월 연금식 소득 발생

· 발전소 부지 매수 · 매도 · 발전소 자금 대출 가능
· 건축물 가용지 1.5 적용

▶ 해남 현산 고현리: 100kW 7구좌, 500kW 2구좌
▶ 경기도 안성: 400kW (분할 가능)
군중에서 분양, 건축 허가완료, 선로 용량 있음

▶ 해남 현산 구시리: 100kW 7구좌 우형이 생육사
* 100kW 예비 발전사업주 모집
발전소 개발행위 완료된 토지 매입(1MG급)

유니솔라 에너지 H. 010-9340-5519
☎ 062)672-5519

컨테이너 아주컨테이너

· 컨테이너 농가 주택 주문 제작
· 중고 사고 팔고
· 할부 가능

※ 직원구함

아주크레인 www.ajucon.co.kr
☎ 062)955-4100 휴. 010-6648-8990